K리그1 36라운드 | FC서울, 12경기 무승 끝…최용수 감독 첫 승 신고

강등권 탈출 특명! 한숨 돌린 서울

박주영 후반 종료 직전 극적 PK 골
전남 꺾고 승점 3점 추가…9위 수성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하위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반전을 시작하면서다. 3일 상주 상무를 2-1로 꺾은 뒤 10일 강원FC 원정에서 3-2로 승리, 11월 열린 두 경기를 싹쓸이했다. 승점 36으로 생존 희망을 부풀렸다. 승강제 시행 이후 매년 최하위를 오가면서도 항상 살아남은 인천 특유의 '생존DNA'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축구계의 시선은 11일 정규리그 36라운드 두 경기에 쏠렸다. 모두 강등권 탈출 다툼과 맞물렸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조우한 FC서울과 전남 드래곤즈, 대구스타디움에서 맞선 대구FC와 상주 가운데 강등을 피한 팀은 대구가 유일하다.

35라운드까지 서울은 9위에 랭크됐으나 굉장히 불안했다. 12경기 연속 무승(5무7패) 속에 먼저 36라운드를 치른 인천과 격차가 승점 1까지 좁혀졌다. 승점 32로 12위에 머문 전남도 다급했다.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극히 불편했을 인천의 도약. 이에 대한 두 팀의 관점은 비슷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인천이 강원에게 잡혔다면 선수들의 긴장이 풀렸을 것"이라고 했다. 정신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안델손, 에반드로, 마티치 등 외국인 선수들을 제외하고 출전엔트리(18명)를 전부 토종으로 채운 배경이 여기에 있다.

최 감독은 "전원 국내파는 지도자 인생 처음이다. 훈련태도 및 컨디션, 전술이해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을 짰다"고 설명했으나 상당한 모험이었다.

전남 김인완 감독대행도 '우리'에 초점을 뒀다. "인천이 꼴찌를 벗어난 것보다는 우리가 (3)연패를 끊어야 한다. 부상자들이 뛰겠다고 나설 정도로 모두의 의욕이 좋다"고 능동적인 팀 분위기를 전했다.

벤치 의지를 반영하듯 그라운드의 90분은 치열했다. 자세를 낮추지 않았고 무게중심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경기 흐름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이 앞서면 상대가 따라잡는 패턴이 2-2까지 이어졌다.

서울 지휘봉을 다시 잡고 치른 앞선 세 경기(2무1패)를 동일한 양상으로 놓친 최 감독은 "득점 후 조기 실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수가 늘고 불필요한 볼 터치가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정확한 치료는 이뤄지지 못했다.

후반 30분을 기점으로 전남의 저돌성이 빛났으나 운은 홈 팀의 몫이었다. VAR(비디오판독)로 페널티킥(PK) 두 개를 만들었다. 1-1을 2-1, 2-2를 3-2로 만든 골이 모두 그렇게 만들어졌다. 특히 후반 종료 직전 PK 판정은 전남 입장에선 아쉬웠다. 여기저기서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13경기 만에 승점 3을 챙긴 서울은 마음껏 축하받지 못했다.

명암은 확연히 갈렸다. 대구와 0-0으로 비긴 상주(승점 37)가 10위를 탈환한 가운데 승점 40의 서울은 9위를 지켜 한숨을 돌린 반면, 전남은 강등이 한층 가까워졌다.

상암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FC서울 박주영(앞쪽)이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전남 드래곤즈와의 홈경기에서 비디오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성공 시킨 뒤 최용수 감독과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상암 | 뉴시스

프로축구 경기결과 ▶ 10·11일

춘 천	강원	2	:	3	인천
수 원	수원	3	:	3	울산
창 원	경남	1	:	2	포항
서귀포	제주	0	:	0	전북
대 구	대구	0	:	0	상주
상 암	서울	3	:	2	전남

기성용, 풀타임 활약…팀도 2-1 승리

기성용(29·뉴캐슬)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풀타임 출전은 지난 9월 2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일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올 시즌 첫 번째 도움을 기록했던 기성용은 본머스전에서도 특유의 패스 센스를 과시하며 건재를 알렸다. 뉴캐슬은 2-1로 승리했다.

손흥민, 후반 교체 출전…팀도 2연승

손흥민(26·토트넘)은 11일 영국 런던 셀허스트파크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26분 루카스 모우라를 대신 교체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막혔다. 토트넘은 후반21분 후안 포이트의 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고 2연승을 달렸다.

황희찬, 부상 경미…대표팀 합류 예정

황희찬(22)의 소속팀인 함부르크는 11일 에르츠게브르게 아우에와 2018~2019 독일 분데스리가2 1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황희찬은 허벅지 부상 여파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8승3무2패(승점27)가 된 함부르크는 분데스리그2 선두 자리를 이어갔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황희찬이 허벅지 부상이 있지만, 가벼운 부상이어서 예정대로 호주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리그2 시즌 마감…승격 구도는 미정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이 11일 펼쳐진 5경기를 끝으로 정규리그(36라운드) 일정을 마쳤다. 아산 무궁화가 21승9무6패(승점72)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에 성남FC(18승11무7패·승점65)가 2위, 부산 아이파크(14승14무8패)가 3위, 대전 시티즌(15승8무13패·승점53)이 4위를 차지했다. 승격 구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수 수급 중단을 결정한 아산의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까지 아산이 선수 충원을 하지 않고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 2위 성남이 K리그1에 자동 승격한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총체적 난국' 수원…축구 명가의 몰락



취재파일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빅 매치 잇단 패배…홈팬마저 외면
대안 부재…사무국 내 알력 다툼도

한때 K리그의 성지였다. 가장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됐고, 성적 또한 출중했다. 위대한 한 시절을 보낸 수원 삼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하다 못해 처량하다. 경기장 N석 스탠드에는 날씨가 궂으나 맑으나 '축구수도' 걸개가 나부끼지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36라운드 홈경기는 참담했다. 베스트 라인업이 출동했음에도 3-3으로 비겼다. 0-2를 3-2로 뒤집고도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내줬다.

스탠드는 차갑게 식었다. 포항 스틸러스(4일·3988명)~울산(3771명)으로 이어진 11월 홈 2연전의 총관중이 8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이상 '축구수도의 축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4강에 올랐으나 결승행이 좌절된 뒤 수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목표도, 의지도 상실한 듯하다.

마지막으로 기댈 구석은 정규리그 4위. 그러나 3위권이 확정된 울산의 FA컵 우승을 전제로 ACL 플레이오프(PO) 출전권이 걸린 빅매치에서 수원 수비진은 치명적 실수를 반복했다. 큰 경기, 결정적 순간마다 실책을 범한 이들이 계속 출전하는 것은 과거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빡빡한 일정, 주력선수들의 줄부상, 부족한 대체자원은 K리그 전 구단의 공통적 고민이다.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에 앞서 팀내 의무·체력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몸값과 퍼포먼스가 비례하지 않는 선수들을 과감히 정리하려는 노력이 우선이지 않을까.

문제는 선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홈 오브 풋볼'을 기치로 내건 구단의 지향점이 모호하다. 팀 운영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그냥 유지하는 듯한 인상이 다분하다. 수백억 원의 적자폭을 줄이려는,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작업이 공감을 얻으려면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옛 영광에 젖은 팬들을 이해시키는 스킨십 역시 필수다.

볼썽사나운 꼴을 자주 연출하는 사무국에도 혹독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모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화합 대신 힘겨루기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를 향한 따가운 눈총이 많다. 프로다운 업무추진을 위해선 내부정리가 기본이다. 곪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구단 수뇌부, 모기업 차원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A부터 Z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수원은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는 많은 축구인들의 한탄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황의조가 지난 11일 쇼난 벨마레와의 J리그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호주 원정을 떠나는 축구대표팀에 포함된 황의조는 물오른 골감각을 과시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사진캡처 | 감바오사카 홈페이지

황의조 6G 연속골…벤투가 웃는다

시즌 16호골…팀 1부 잔류 견인
대표팀 호주 원정 앞두고 희소식

축구국가대표팀 소집을 앞둔 황의조(26·감바 오사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골 소식을 전해왔다.

황의조는 10일 스이타스타디움에서 열린 쇼난 벨마레와의 일본 J리그 3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5분 고키 요네쿠라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해 1-0 결승골을 터트렸다. 황의조의 최근 6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16호골이다. 승점 3을 획득한 감바 오사카는 시즌 종료까지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강등권 팀들과의 격차를 승점 8로 벌리며 1부리그 잔류를 확정했다.

황의조의 골은 마치 주말 TV프로그램처럼 토요일마다 불을 뿜고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과 9월 A매치를 연속으로 치른 뒤 팀에 합류한 그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골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절정의 골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스트라이커의 존재는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에게도 희소식이다. 11월 호주 원정 A매치를 앞둔 '벤투호'에는 간판 공격수 손흥민(26·토트넘)이 합류하지 않는데, 리그의 수준을 떠나 소속팀에서 황의조만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공격수가 없다. 석현준(27·랭스)은 아직 골이 없다. 황의조의 활약이 반가운 이유다.

황의조는 10일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했다. 11일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6라운드 성남FC-부산 아이파크전이 펼쳐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을 찾아 친정팀 성남의 경기를 관전했다.

한편 호주에서 A매치 2연전(17일 호주·20일 우즈베키스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해 곧장 출국한다. 정승현(가시마 앤틀러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황희찬, 김정민(리퍼링), 이청용(보훔) 등 5명은 현지로 합류할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